

본당 소식

2024년 6월 생활말씀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되는지 모른다(마르 4,26-27)”

♣ 공동체 함께 성경 읽기

- 매일 7~8페이지씩 성경을 읽읍시다!(주님 성탄 대축일까지)

♣ 한국 주교단 로마 사도좌 방문(Ad limina)

- 일시: 2024년 09월 16일~21일
- 사도좌 방문 후, 22일 주일에 대구대교구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님과 장신호 요한 보스코 보좌 주교님께서 밀라노 한인성당을 방문하십니다.
- 각 구역별로 견진성사 대상자를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역 모임 및 회의

- 성모회의: 오늘 미사 후, 오라토리오
- 청년성서 모임: 다음 주일(30일) 미사 후, 사제관

♣ 봉사자

• 계단,화장실: 김재의 미카엘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196,72€ • 교무금 380,00€

전례 봉사

이번 주일(16일)	다음 주일(23일)
1독서: 김재의 미카엘	1독서: 정명용 미카엘
2독서: 김윤경 모니카	2독서: 정지원 글라라
복 사: 김익찬 암브로시오, 김사빈 엠마	복 사: 박동현 요한보스코, 안태오 마태오

전례 성가

입당 : 76 (그리스도의 왕국)

봉헌 : 510 (주님께 올리는 기도)

성체 : 168 (오묘하온 성체), 167 (생명이신 천상양식)

파견 : 202 (구세주의 성심이여)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총회장: 정명용 미카엘 부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총무: 이승원 비오

1구역장: 우윤정 마리아 2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청년구역장: 이승지 로사리아 전례위원장: 허희숙 마리아 성모회장: 박수정 클라라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대외협력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2024년 6월 16일 (녹) 연중 제11주일

미사 전례

화답송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 주님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당신 이름 찬송하 나이다. 아침에는 당신 자애를, 밤에는 당신 진실을 알리나이다. ☉

○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향백나무처럼 자라나리라. 주님의 집에 심겨, 우리 하느님의 앞뜰에서 우거지리라. ☉

○ 의인은 늙어서도 열매 맺고, 물이 올라 싱싱하리라. 불의가 없는 나의 반석, 주님이 울곧음을 널리 알리리라. ☉

제1독서 (에제키엘 예언서 17,22-24)

22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손수 높은 향백나무의 꼭대기 순을 따서 심으리라. 가장 높은 가지들에서 연한 것을 하나 꺾어

내가 손수 높고 우뚝한 산 위에 심으리라.

23 이스라엘의 드높은 산 위에 그것을 심어 놓으면

햇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으며 훌륭한 향백나무가 되리라.

온갖 새들이 그 아래 깃들이고 온갖 날짐승이 그 가지 그늘에 깃들이리라.

24 그제야 들의 모든 나무가 알게 되리라.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며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시든 나무는 무성하게 하는 이가 나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2서 5,6-10)

형제 여러분, 6 우리가 이 몸 안에 사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확신에 차 있습니다.

7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8 우리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을 떠나 주님 곁에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9 그러므로 함께 살든지 떠나 살든지

우리는 주님 마음에 들고자 애를 씁니다.

10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몸으로 한 일에 따라 갚음을 받게 됩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 알렐루야.

복음 (마르코 4,26-34)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26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27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되는지 모른다.

28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다음에는 이삭에 낱알이 영근다.

29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댈다.

수확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30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31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32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33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34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하늘 나라의 신비를 전하는 교회를 살피 주시어, 모든 이를 당신의
자비로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2.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의 임금이신 주님, 전쟁과 폭력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을 굽어보시어, 악을 악
으로 갚는 악순환에서 벗어나 선으로 악을 이겨 냄으로써 참평화가 깃들 수 있게 도
와주소서.

3. 조국을 떠나는 이주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보호자이신 주님, 전쟁이나 굶주림을 피하여 위험하고 무차별적인 폭력이 벌어지는
길로 내몰린 이주민들을 지켜 주시어, 그들이 어렵게 찾아 머무는 나라에서 환대받
고 새 삶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4.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여러 이유로 위기를 겪는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어,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마음을 헤아리고 사랑을 키우며 믿음 안에서 어려움을 이겨 내게 하소서.

성체 후 기도

주님, 이 거룩한 잔치에서 성체를 받아 모셨으니

저희가 주님의 사랑으로 친교를 이루어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